

# 민주주의 혁신, 광주시의회의 시대정신이다

아침을 열며

강수훈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광주만의 특색있는 의회 민주주의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의제가 위장(偽裝) 민주주의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통 시민을 더 자주 만나고, 적극적 시민과 보다 깊게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의회 곳곳에서 토론과 공론의 장이 열리고, 광주의 현안과 미래를 논해야 한다. 민생, 인구절벽, 세수감소, 청년 일자리, 출산 및 육아 대책, 어르신 복지, 군공항 이전, 학생인권조례 등 사안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면서 최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의회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단어는 Parliament로, 어원인 프랑스어 parler는 '말하다', '토론하다', '토의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결국 의회는 '토론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영국 의회인 웨스트민스터에서 정부와 야당간 격렬하게 진행되는 총리질의(Prime Minister's Questions, PMQ)에서 발휘되는 수준 높은 의원의 토론은 의회가 품격 있는 정치토론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소통 수단을 증시해야 건강한 정치 담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주시의회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의회는 권한이 없어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일하는

정치, 토론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목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한다면 향후 광주시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런데 최근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미래로 나아가는 비전 제시나 토론을 통한 설득의 과정이 아니라 선거 유불리를 위한 프레임 정치가 등장해서 걱정이다. 시 집행부와외의 관계를 고려해 친강대 반강, 조선대 재선, 자치구 간 구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관계 등 반사이익 정치를 하려는 움직임은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갈등을 조장하는 편 가르기 프레임은 혁신 의회를 지향하는 광주시의회에서 추방되어야 할 정치 전략이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열심히 일하는 대표 심부름꾼 선발 경쟁이 되길 바라는 시민의 요구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광주시의회 후반기 2년의 시대정신은 뭘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시대에 누가 더 못 하나로 결론짓게 되는 반사이익 정치를 뛰어넘어 토론과 설득으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선보이고, 더 나은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담대한 전진 아닐까. 정의로운 혁신이라는 가치와 철학에서 출발해 함께 뜻을 세우고, 더불어 도모한다면 제9대 광주시의회는 분명 지방자치의 새로운 여정을 열게 될 것이다. Yes, we can!

2022년 지방선거 후, 평균 나이 47세와 초선 70%로 출범한 제9대 광주시의회는 지방의회 역사상 가장 젊은 의회로 시작했다. 젊은 의회인 만큼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제기됐다. 역동적이고 패기와 열정이 기대되는 반면, 경험 미숙과 경륜 부족을 우려 삼았다. 그러나 지난 2년의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면 염려는 기우에 불과했고, 그러한 우려를 기대로 바꾸기 위한 큰 노력이 있었다.

시정질문은 날카로웠고,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과정 내내 집행부를 긴장시켰다. 해묵은 현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학습하고 토론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2038 아시안게임' 연구 용역 부실을 밝혀내며 시정토록 했고, 성역처럼 굳어있는 '5월 문제'를 릴레이 5분 발언을 통해 용기있게 정면으로 맞섰다.

광주시의회 전반기 2년이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었다면, 다음 후반기 2년은 신(新)지방의회 시

## 社說

# 신안 '햇빛연금' 감소 허투루 볼 일 아니다

## 선제 대응 필요한 재생에너지

기후변화로 신안군의 '햇빛연금'이 예상치 못한 난기류를 만났다는 소식이다. 잦은 비로 일조량이 크게 떨어졌고 덩달아 태양광 발전량이 줄면서 햇빛연금마저 줄어든 것이다. 햇빛연금의 시작은 이익공유지만 본질은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탄소정책 전환에 있다. 기상 변동에 대비해 범정부차원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주민 소득을 높이고 인구 증가를 이끄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도 크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에 비해 탄소 배출이 훨씬 적고, 무한한 자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전남지역 평균 일조 시간이 133시간으로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일조시간에 비해 25% 줄면서 올해 1분기 총 발전량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 줄어든다. 신재생에너지의 위기에 따른다.

기후변화를 줄이려면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필수다. 우리나라도 오는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했다. 오는 21일에는 서울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모색하는 아시아 재생에너지 성장 포럼이 열린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비 등 기상 변동에 면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업자 등과 설비의 효율적인 유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탄소감축에 미온적인 대표적인 국가다. 탄소배출량 세계 10위이면서 기후대응 성과도 미흡하다. 정부는 기상변화에 따른 발전량 감소라는 이번 신안의 사례를 허투루 봐선 안된다. 신안의 햇빛연금감소는 미미한 것이지만,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중대한 경고다. 신안의 햇빛연금 감소를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 지방소멸 위기 '특별자치도'로 넘어야

## 전남도, 특별법 제정 추진키로

전남도가 제주, 세종, 강원, 전북에 이어 특별자치도에 도전한다. 전남도는 지난 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제 22대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남지역 당선인들도 전남특별자치도 등 주요 현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도는 특별법에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비교 우위의 자원을 활용한 정책 모델을 발굴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특례와 규제 완화를 담은 예정이다. 도가 특별법을 통해 확보하려는 특례 조항은 △무안공항 국제항공물류정비 특구 지정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40MW 이상) 지

정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외자유치를 위한 카지노업 허가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 7가지다.

특별자치시·도는 일반적으로 부여된 시·도 권한과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역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특별한 지역이라는 의미다. 지방분권의 획기적 신장을 목적으로 전국에 설치된 특별자치시·도는 서울을 제외하고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세종특별자치시(2012년), 강원특별자치도(2023년), 전북특별자치도(2024년) 등 4곳이다. 특별자치시·도는 국가전속사무를 제외한 정부 권한을 대폭이 관방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예산, 난개발 우려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전남은 지방소멸에 직면한 최대 위기지역이다. 돌과구를 찾지 못하면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빠른 소멸이 우려된다.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지역성장 동력 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다면 전남도의 특별자치도 추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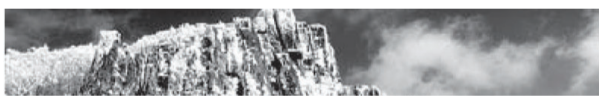
8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우산을 쓴 한 남성이 눈 내리는 거리를 걷고 있다. 모스크바에 이례적인 추운 날씨가 찾아와 기온이 2도까지 떨어졌으며 추운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AP/뉴시스

## 서식대

"바다 속 해조류는 바다의 숲이다. 지구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탄소 흡수와 산소를 생산하는 육지의 숲보다 더 중요하다." 지난 2017년 BBC가 방영한 '블루 플래닛 2'는 바다 속, 화려한 영상미가 압도적인 다큐멘터리다. 생동감 있는 산호정원과 신비하고 화려한 해조류 군락, 온갖 해양생물이 모여 사는 바다 숲은 그야말로 환상이었다. 심해에서 발견된 미지의 생명체, 밀물과 썰물이 이어지는 해안가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해조류의 끈질긴 생명력도 경이로웠다. "해조류를 비롯한 모든 해양 생명체를 보호하는 것은 곧 지구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게 다큐를 제작한 해양학자 실비아 열의 설명이다.

열의 말처럼 바다 속 바닷말과 해초는 바다 생태계의 근간이다. 수산자원의 먹이이면서 서식처로 연안생물의 다양성과 생산성도 높인다. 바다로 유입되는 과도한 영양염이나 중금속을 흡착하고 해수에 용존산소를 공급해 생태계의 건강성도 지킨다. 인류의 소중한 식량자원으로, 인체에 유용한 성분을 다량 함유한 바이오산업의 중요자원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해조류에 함유된 바이오에탄올을 추출해 화석연료의 대체자원으로 활용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 바다식목일

하지만 바다 속 해조류는 지금 상상을 초월할 위험에 놓여있다. 어찌보면 인류의 오만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다.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해역에서 석회조류가 고사하는 갯녹음 현상이 발생한 뒤 10여 년 사이 남해와 동해 연안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갯녹음 현상이 전국 연안의 33.5%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푸르던 바다 속 색깔도 암울한 회색빛으로 바뀌었다. 특히 남해안의 갯녹음은 성계와 같은 조식동물의 섭식과 수온 상승, 부유물질 퇴적이 원인으로 뾰족한 대책마저 없다고 한다.

10일은 12회째를 맞는 '바다식목일'이다. 지난 2012년 제정된 바다식목일은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제정된 지구촌에서는 유일한 행사다. 해조류의 소멸은 수산자원 고갈과 어업소득 감소는 물론 지구를 더욱 뜨겁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닷가로 나가 김이나 미역, 모자반, 감태 등을 직접 심고 키울 수는 없는 일이다. 바다식목일인 오늘 하루라도 해조류에 관심을 갖고, 일회용품 줄이기와 걷기 등 바다와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에 나설 일이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